

계절학기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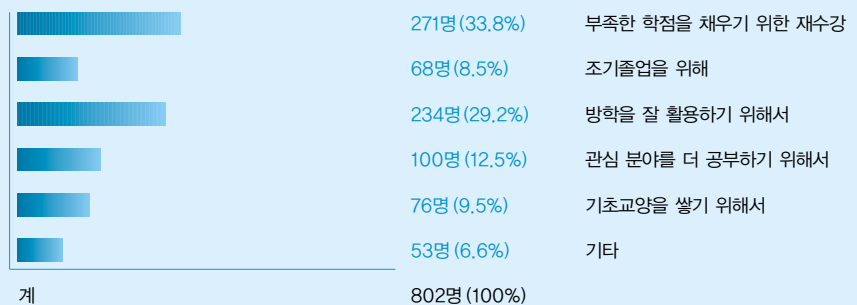
기초교양, 관심 분야 공부로 내실있는 방학 원해

계절학기 수강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71명(33.8%)은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한 재수강' 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34명(29.2%)은 '방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다. '관심 분야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라고 답한 학생은 100명(12.5%), '기초 교양을 쌓기 위해서' 라고 답한 학생은 76명(9.5%)으로, 재수강과 조기졸업 등의 목적을 위해 계절 학기를 신청하는 학생보다 방학의 내실화나 기초교양, 관심 분야 공부 등의 목적을 위해 계절학기를 신청하는 학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주관식 답변으로도 학기와 차별되는 활동적인 강좌나 여유로운 방학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심층적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행 계절학기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할 때, 약 2.85점이라고 평가했다. 3점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245명(51.7%)으로 제일 많았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현행 계절학기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목개설과 기간단축을 지적한 학생이 많았다. 응답자의 241명(50.8%)이 다양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21명(25.5%)이 기간단축이라고 응답하였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전공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계절학기 시작이 너무 빨라서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수강료 인하 및 환불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① 계절학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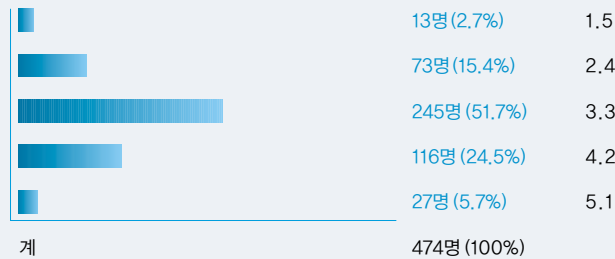


〈열린 지성〉 4호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기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중앙전산원 설문 조사 시스템(<http://isurvey.snu.ac.kr>)을 통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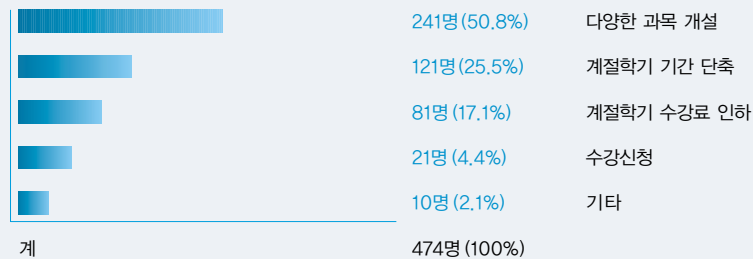
설문은 계절학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 등 5개의 문항과 하나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는 총 474명의 학생이 응답했으며,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1학년이 52명(11.0%), 2학년이 124명(26.2%), 3학년이 134명(28.2%), 4학년이 164명(34.6%)이었다.

계절학기의 강의부담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234명(49.4%)이 '부담스럽다' 고 답했고, '매우 부담스럽다' 고 37명(7.8%)이 대답했다. 반면 '정규학기 보다 더 편하다' 고 응답한 학생은 47명(9.9%)이었다. 정규학과와 비슷하다고 답한 학생은 156명(32.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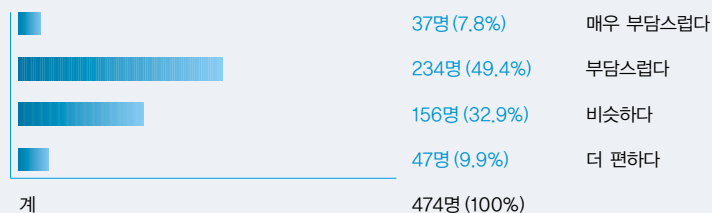
② 현행 계절학기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입니까? (매우 만족한다 : 5, 불만족스럽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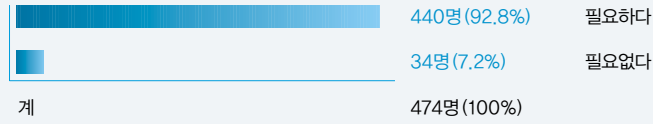
③ 현행 계절학기 제도 중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④ 계절학기 수업의 부담은 정규학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6 겨울 계절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밖에 겨울 계절학기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응답자의 대다수인 440명(92.8%)이 겨울 계절학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겨울 계절학기가 없는 대신에 타고 계절학기 인정 폭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주관식 답변에서는 냉방시설의 확충과 계절 기간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해달라는 등 시설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학사과의 계절학기 운영 입장

사전수요조사 강화를 통한 여론 수렴 기간단축은 일정상 어려워

계절학기 업무를 담당하는 학사과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사전수요조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비수강신청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교과목 개설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계절 강좌도 늘었다. 올해는 401개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으로 작년(2005년)에 개설된 370개에 비해 31강좌가 늘어났다. 교양강좌는 327개에서 352개로 25개가 늘었으며, 전공강좌의 경우도 올해 45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작년의 38강좌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학사과에서는 계절학기 기간 단축과 겨울 계절학기 개설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교과과정의 유연한 운영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여름 계절 학기를 강화하여 3학기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 계절학기를 실시할 경우 담당과목을 준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수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며, 겨울 계절학기를 졸업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겨울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글 : 이상화

